

대한민국,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

- 향후 3년간 WHO의 예산·전략 수립 및 보건 현안 대응 주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6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되었다고 밝혔다.

* 서태평양 지역에 배정된 5개의 WHO 집행이사국 중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가 있으면 당해 연도 지역위원회에서 다음 WHO 집행이사국을 내정하고, 다음 연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를 확정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총 5개국이 배정되어 있다.

* '23.10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 : 일본('21.5-'24.5), 말레이시아('21.5-'24.5), 중국('22.5-'25.5), 미크로네시아('22.5-'25.5), 호주('23.5-'26.5)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1949년)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임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 매년 1월·5월)에 참여하게 된다.

* 그간 우리나라 집행이사 역임 사례 : 이용승 전(前) 중앙보건소장('60-'63), 이성우 전(前) 국립보건원장('84-'87), 신영수 전(前)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95-'98), 엄영진 전(前) 보건복지부 실장('01-'04), 손명세 전(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07-'10), 전만복 전(前) 보건복지부 실장('13-'16), 김강립 전(前) 식약처장('20-'23)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프레임워크)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보건 현안을 다루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이번 집행이사국 내정은, 앞으로 WHO의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기여와 조언을 지속해 달라는 국제 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건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장은섭	(044-202-2360)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정열	(044-202-2354)

